

## 한·중·일어에서의 영어 어휘 차용어의 음역과 번역 문제에 대한 연구\*

김해연  
(중앙대학교)

**Kim, Haeyeon. 2009. A Study of Problems in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of English Vocabulary into Korean, Chinese, and Japanese. *Language Research* 26(3), 1-19.** Through contact with English-speaking countries, Korean (K), Chinese (C), and Japanese (J) have borrowed and integrated many English words into their lexicons. In borrowing English words into their languages, the three languages have adopted the two major methods: (i) transcription of the English words, and (ii) translating and coining new words by using Chinese characters. In transcribing English words, Chinese, syllable-based writing characters, has limitations, but it is efficient and economic in translating and coining new words.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study first discusses problems of transcribing or translating English loanwords into those three languages in terms of the Saussurean theory of semantics/semiotics. Second, it examines and compares problems in transcribing English words into those three languages. Third, this research discusses how Korean has borrowed and integrated English loanwords into its lexicon in the course of history. Fourth, this study shows problems in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borrowing and integrating English words into those three East-Asian languages. (Chung-Ang University)

**Key Words** Contact linguistics, borrowing, English loanwords, Saussure, signification, transcription, translation

### 1. 서론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지칭하는 동아시아의 세 나라는 외국 문물과의 교류, 문호의 개방과 더불어 많은 어휘를 그 나라의 언어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또는 후반에 들어 문호의 개방과 더불어 외국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영어권과의 접촉으로 인해 많은 영어 어휘가 각 언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서양 문화의 도래와 더불어 문화간의 접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어휘의 차용이라고 할 수 있다(김해연 2008, 양만섭 2001). 서양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어휘의 차용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외국어, 특히 영어 어휘의 차용은 외국과의 수교 이후의 양상은 한·중·일 삼국의 언어에 일어난 증대한 변화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 본 논문을 읽고 도움말을 주신 두 분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하고, 어떠한 잘못이나 오류는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외국어어로서의 영어 어휘의 차용의 양상은 한·중·일어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일부의 어휘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세 나라는 서로 어휘를 간접적으로 차용하기도 하였다(김해연 2007a,b, 박영섭 1997). 이러한 점에서 세 나라에서의 영어 어휘의 차용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한·중·일의 언어에 차용된 영어 어휘가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다루는 문제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참고, 양만섭 2001).

외국어의 어휘가 차용될 때 그 어휘에 해당되는 어휘가 없을 경우 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즉, 다시 말해 외국으로부터 문물이 도입될 때, 그 문물(지시 대상)과 그 것을 가리키는 어휘(지시 표현)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음역과 번역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Baker 1992, Bell 1991, Hartman & Stork 1972, Hatim and Munday 2004, Munday 2001). 음역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고, 번역은 원천/소재언어(source language)의 어휘를 목표언어(target language)의 어휘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양 문화와 접촉하게 되었을 때, 'electricity', 'train', 'telephone'과 같은 문물은 한·중·일의 국민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표현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간의 접촉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음역과 번역의 문제가 개입된다고 할 수 있다(김해연 2005, 2007a,b, 2008, 신승용 2003, 양만섭 2001). 이러한 번역의 문제는 결국 '등가성의 유지'라는 번역의 일반 원칙을 생각해 볼 때, 신문물(新文物)을 접한 이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중·일의 언어에 있어서 새로운 문물을 접했을 때, 이들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음역이나 번역이 이루어졌는가를 Saussure(1916/1965)의 기호학/의미론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외국어의 번역은 등가성(equivalence)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새로운 문물의 경우 언어적으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 일대일(一對一)의 대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9세기 서양과 문물 교류가 이루어지면 영어의 어휘의 한·중·일 삼국의 언어에 수용된 양상은 대단히 복잡한데,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자.

(1)	외국어/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a.	Netherlands	네덜란드/화란 <sup>1)</sup>	荷蘭 [Hélán]	オランダ [Olanda]
b.	the Atlantic	대서양(大西洋)	大西洋	大西洋
c.	Cholera	콜레라/虎列刺	(流行性)霍亂	コレラ[korera]
d.	Germany	독일(獨逸)	德國	獨逸
e.	Deduction	연역법(演繹法)	演繹法	演繹法

1) '화란(和蘭)'은 언론 매체나 교재 등에서 여전히 쓰이지만, 아무래도 구세대적인 표현이고, 신세대는 '네덜란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겠다.

위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Netherlands'는 한국어에서는 '네덜란드'라고 표기하는데, 이전에는 중국어에서 원음에 가까운 한자어 '荷蘭[Hélán]'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일본어에서는 'Holland'를 카타카나를 사용해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b)의 'The Atlantic (Ocean)'의 경우는 다 같이 한자어로 그 의미를 사용하여 한·중·일어에서 다 공히 '대서양(大西洋)'이라고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1c)의 'cholera'는 한국어에서는 '콜레라'라고 표기하는데, 개화기에는 음역 표기에 따른 중국식 한자 '虎列刺'를 한국식 한자 발음에 따라 '호열자'라고 불렀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를 한자어로 번역을 하여 '(流行性)霍亂'이라고 하고 일본어에서는 이를 'コレラ[korera]'라고 표기하고 있다. (1d)의 'Germany' 또는 'Deutschland'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독일' 또는 '獨逸'로 표기하는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德國'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e)의 'deduction'은 한·중·일 3개 언어에서 다 같이 한자어로 '演繹法'이라고 표기하고 각 언어의 발음에 따라 읽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상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사용된 영어 어휘 표기 양상은 한·중·일어에 있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의역의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 같이 한자를 받아들여 중국과 더불어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자를 통한 영어 어휘의 번역의 문제는 한 언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어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영어 어휘가 어떻게 음역 또는 번역되었는가를 일일이 검토하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영어의 어휘를 차용하게 될 때 대두되는 문제를 Saussure의 기표(記標, signifier)와 기의(記意, signified)로 구분한 기호학/의미론을 중심으로 의미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Saussure 1916/1965). Saussure는 의미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단어, 즉 언어 기호(linguistic sign)는 형태를 이루는 음성적 요소인 소리 영상(sound image)과 의미를 이루는 개념(concept)이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원천 언어에서 소리와 개념의 결합인 어휘가 목표 언어의 소리와 개념이 결합된 어휘로 어떻게 등가성의 유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번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영어 차용어에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와 의미간의 관계를 일 대 일(一對一)의 대응으로 보는 관점에서 번역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영어 어휘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 대 일의 대응 관계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소쉬르의 기호/의미론과 음역과 번역의 형태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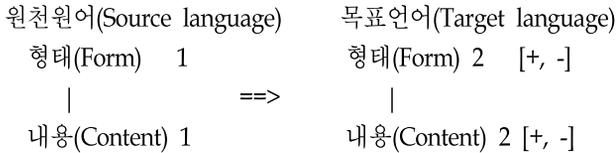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어의 어휘를 차용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음역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목표언어의 어휘를 활용해서 번역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Baker 1992, Bell 1991, Hartman & Stork 1972, Hatim and Munday 2004, Munday 2001). 이와 같은 문제는 소리와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소쉬르의

4 김혜연

기호, 의미 이론에 따라 분류하고 논의해 볼 수 있다(Saussure 1916/1965, 김혜연 2005, 2007 a,b).

Saussure(1916/1965)는 기호(sign)에 있어서 소리와 개념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소리영상을 기표(記標: signifier[signifiant])로, 그리고 개념을 기의(記意: signifié [signifié])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기호, 즉 단어는 기표와 기의, 즉 “소리영상과 개념의 심리적 연합(association) 관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언어기호에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상호간에 필연적 관계에 의한 도상적 관계(iconic relation)를 갖는다기보다는 자의적(恣意的) 관계(arbitrary relation)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즉, 소리영상과 의미 개념의 관계는 ‘나무’, ‘tree’, ‘arbre’, ‘Baum’ 등과 같은 소리영상이 의미 개념인 [나무]와 자의적(arbitrary)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위와 같은 Saussure의 의미론을 외국어 어휘의 도입과 관련하여, 번역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번역은 원천언어(source language)의 소리영상인 [형태 1]이 목표 언어의 소리영상인 [형태 2]로 바뀌고, 의미 개념인 [내용1]은 [내용2]로 변함없이 그대로 연결/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소리와 의미간의 결합으로 단어가 생성된다는 Saussure의 의미론을 받아들이고, 이를 번역의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김혜연(2005, 2007a,b)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번역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그림 1] 번역에서의 형태와 의미의 관계

위의 [그림 1]에서 원천언어와 목표 언어간에 형태와 내용이 상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편의상 [+ , -]로 표기하기로 할 때,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도식을 외국어 어휘의 차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원천언어의 형태와 내용이 목표언어에서 상응하는 형태와 내용이 있는 경우, 즉 ‘sun’, ‘moon’, ‘water’ 등과 같은 경우는 ‘해’, ‘달’, ‘물’과 같이 번역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원천언어, 즉 영어의 어휘에 해당하는 대응 어휘가 한·중·일어에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는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는 음역의 방법으로 이 경우에 원천언어의 어휘의 소리영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리형태는 원어의 음소에 가장 가까운 음소로 대체하고 음운 규칙에 따라 형태를 만들고 다음으로 의미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문맥

또는 상황에 의해서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라 하겠다. 둘째로, 목표언어에 대응 어휘가 없는 경우, 원천언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살려 조어를 만드는 방법이다. 즉, 서양 문물을 가리키는 영어 어휘를 한·중·일어에 도입할 경우, 상당수 많은 어휘가 뜻글자인 한자를 이용하여 새로이 조어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직역하는 경우와 의미 성분을 검토하여 그 중에서 현저한 성분을 선택하여 조어를 하는 의역의 경우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한국어에 있어서 개항 이후 어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음역의 방식을 사용하여 표기한 어휘를 보면, Christ, Jesus, English와 같은 고유명사를 각각 '基督', '耶穌', '잉글니식'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ream, tobacco, gas, opium등과 같은 보통명사는 '구림(크림)', '다박고', '와사(瓦斯)', '아편(阿片)' 등으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글로 표기한 경우도 있지만,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한자로 음역된 어휘를 그대로 들여와 이를 한국식 한자의 발음으로 읽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조어의 방식으로 번역을 한 예를 보자면, airplane을 '날틀'로, university를 '큰배움터'와 같이 순수 한글 고유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sunflower'를 '해바라기'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 대신 한자식 조어인 '飛行機'와 '大學校'가 통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어의 문자를 직역한 경우는 'handball', 'volleyball'을 각각 '手球', '排球'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해연 2008).

이처럼 원천언어의 어휘를 받아들일 때, 목표언어에 이에 대응되는 어휘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음역의 방법이나 신조어에 의한 번역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한·중·일어에 있어서 특히 19세기 중반 또는 후반에 영어 어휘를 받아들일 때 이러한 번역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자를 이용한 신조어 번역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한·중·일어가 다 같이 한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세 나라에서 다 같이 통용되는 한자 신조어로 번역이 된 경우도 있고, 각 언어별로 다른 번역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영어 어휘를 각각 어떻게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히 보도록 한다.

### 3. 중국어에서의 영어 어휘의 차용과 표기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양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영어를 비롯한 여러 서구 언어와 접촉하게 되었고 서양 문물들을 가리키는 어휘를 받아들였다. 이 경우에 원천언어의 어휘를 음역하거나 또는 신조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들 어휘를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일찍이 불교의 도입과 번역에 있어 Shakamoni를 '釋迦牟尼', Nirvana를 '涅槃', 'Buddha'를 '佛陀' 등으로 원음에 가까운 한자를 선택하여 음역을 하였다. 이러한 음역어는 한자어의 의미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원어에 가까운 한자를 선택적으로 찾아서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서양 제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여러 지명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Europe', 'Africa', 'America' 등을 각각 '歐羅巴', '亞非利加', '亞美利加' 등 다양한 모양으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은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격변기를 거쳐서 1949년 사회주의국가 체제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고전 한자의 모양을 변형시킨 간자체를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중국어의 모습은 과거의 번자체를 사용한 중국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 중국은 또한 1970년대 미국과 수교를 통해 영어권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많은 영어 어휘가 중국어에 수용되게 되었다.

중국어에 수용된 영어 어휘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음역어와 번역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첫째로 음역어로 수용된 어휘의 예를 보도록 하자(박영섭 1997, 동아증한사전 2002).

(2) 영어 어휘	한국어 표기	중국어 표기
(i) a. Singapore	싱가포르	新加坡(Xinjiapo)
b. Israel	이스라엘	以色列(Yiselie)
c. Canada	캐나다	加拿大(Jianada)
d. Swiss	스위스	瑞士(Ruishi)
e. Netherlands	네덜란드/화란	荷蘭(Helan)
f. Moscow	모스크바	莫斯科(Mosike)
(ii) a. golf	골프	高爾夫球(gaoerfuqiu)
b. table tennis	탁구, pingpong	乒乓球(pingpingqiu)
c. bowling	볼링	保齡球(baolingqiu)
d. romance	로맨스	羅曼司(loumansi)
e. coffee	커피	咖啡(kafei)
f. sandwich	샌드위치	三明治(sammingzhi)
g. salad	샐러드	沙拉(shala)
h. bikini	비키니	比基尼(bijini)
i. Yankee	양키	楊其(Yangqi)
j. vodka	보드카	伏特加酒(futejiajiu)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고유명사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뿐만 아니라 보통명사의 경우도 영어 어휘에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가 없을 경우, 이를 음역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자가 기본적으로 뜻글자이지만, 의미와는 상관없이 음성적 요소만 고려하여 음역한 것을 볼 수 있다.2)

2) 이는 신라시대의 이두(吏讀)처럼 내용어는 한자의 의미에 따라 해석이 되어야 하지만, 기능어(function word)는 한자의 의미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되고 소리 나는 대로 읽어야 하는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처용가에

중국어 음역 어휘 중에서 일부는 영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소리 부분을 최대한 영어 어휘에 가깝게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표기를 한 경우도 볼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동아중한사전 2002)

(3)	영어 어휘	한국어 표기	중국어 표기
	a. shampoo	샴푸	香波(xiangbo)
	b. radar	레이다	雷達(leida)
	c. humor	유머	幽默(youmo)
	d. UFO	유에프오	幽浮(youfu)
	e. hacker	해커	黑客(heike)
	f. Cola	콜라	可樂(kele)

위 (3)의 몇 가지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영어차용어 가운데 일부 어휘는 한자의 의미를 살리면서 또한 원음에 최대한 가까운 한자를 선택하여 음역어를 만든 경우라 하겠다.

둘째로, 영어 어휘가 번역된 예를 보도록 하자. 중국어의 글자는 기본적으로 뜻글자로서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알파벳 문자인 영어의 어휘를 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어 어휘들은 영어 어휘의 의미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한자를 조합하여 '번역'을 하는 방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었다. 신조어를 만들 때 영어 어휘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직역의 방법과 해당 어휘의 의미를 고려하여 번역하는 의역의 방법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우선 직역의 방법으로 번역된 예를 보도록 한다(동아중한사전 2002).

(4)	영어 어휘	한국어 표기	중국어 표기
	a. basketball	농구(籠球)	籃球(lanqiu)
	b. football	축구(蹴球)	足球(zuqiu)
	c. necktie	넥타이	領帶(lingdai)
	d. air conditioner	에어컨	空調(kongtiao)
	e. notebook computer	노트북 (컴퓨터)	筆記本電腦(binjiben dianno)
	f. dry cleaning	드라이클리닝	干洗(ganxi)
	g. digital camera	디지털 카메라	數字照相機(shuzi zhaoxiangji)
	h. Reader's Digest	리더스다이제스트	讀者文摘(Duzhe wenzhai)
	i. cocktail	칵테일	鷄尾酒(jiweijiu)

서 '夜入伊遊行尼如多可'와 같이 내용어와 기능어 전부를 한자로 표기해 놓았는데, 내용어는 의미를 따라 해석하고 기능어는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밤드리 노니다가'로 번역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j. Health club                      헬스클럽                      健身房(jianshenfang)

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합성명사를 이루는 어휘의 경우 영어 어휘의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직역한 것을 볼 수 있다.

번역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의역'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원어의 의미를 감안하여 번역을 하는 것으로 이를 의미론의 의미성분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 의미 성분 중에서 현저한 성분을 선택하여 조어를 하는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동아중 한사전 2002).

(5) 영어 어휘	한국어 표기	중국어 표기
a. helicopter	헬리콥터	直乘機
b. train	기차(汽車)	火車
c. streetcar	전차(電車)	有軌電車
d. bus	버스	公共汽車
e. bicycle	자전거(自轉車)	自行車
f. crane	크레인/기중기	起重機
g. apartment	아파트	公寓
h. tomato	토마토	西紅柿
i. watermelon	수박	西瓜
j. diet	다이어트	減肥
k. badminton	배드민턴	羽毛球

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음역어로 표기되는 많은 어휘들이 중국어에서는 '의역'된 어휘로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국어에서는 영어 어휘를 음역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고려하여 한자어를 결합하여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영어 어휘를 받아들일 때 크게 두 가지 방법, 즉 음역의 방법과 신조어에 의한 번역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역의 경우 한자가 근본적으로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절문자로서 알파벳 문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어의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어에서는 제한적으로 음역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최대한 번역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조어를 만들어 영어 어휘를 차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4. 일본어에서의 영어 어휘의 차용과 표기

일본은 서양세계와 좀 더 일찍 접촉을 한 중국과 달리 쇼군(將軍)시대 동안 쇄국정책을 유

지해 왔다. 다만 나가사키 한 군데만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주로 네덜란드를 상대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854년 미국과 수교를 통해 서구 세계와 본격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고 또한 메이지(明治)유신(維新)을 거치면서 서양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많은 영어 어휘들이 일본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일본어에서의 영어 어휘의 수용은 근본적으로 중국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즉 일부의 어휘는 음역의 방식으로 수용이 되었고, 또 일부의 어휘는 번역이 되었는데, 한자문화권이어서 한자어를 사용한 번역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번역된 일부 어휘의 경우는 오히려 중국어에 수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첫째로, 음역어의 경우를 검토해 보면, 일부의 어휘들은 중국어에서 이미 음역되어 사용된 것을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일본식의 한자 발음을 고려하여 한자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중국어와는 다른 한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박영섭 1997).

- |              |                 |                          |
|--------------|-----------------|--------------------------|
| (6) France:  | 佛蘭西 [fu-ran-su] | ((중) 法蘭西[po-lan-si], 法國) |
| Russia:      | 路西亞 [ro-su-a]   | ((중) 俄羅斯, 俄國)            |
| Denmark:     | 丁抹 [ten-matz]   | ((중) 丹麥)                 |
| Deutschland: | 獨逸 [toku-itzu]  | ((중) 德意志(德國))            |

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명사인 여러 나라의 명칭은 중국어에서와 일본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중국어는 중국어 발음에 맞추어 한자를 선택하여 원어의 음에 맞추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는 일본식 한자 발음으로 원어의 발음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음역어를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식 표기와 일본식 표기가 같은 한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는 근본적으로 한자를 간략화한 음절문자(syllabary)를 사용한다. 일본어는 대개의 단어가 자음(C: consonant)+모음(V: vowel)으로 구성되어 CVCV... 유형의 어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어도 영어의 어휘를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휘들이 카타카나로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엡센스 일한사전 2006).

- |              |        |                         |
|--------------|--------|-------------------------|
| (7) 영어 어휘    | 한국어 표기 | 일본어 표기                  |
| a. gasoline  | 가솔린    | ガソリン[gasorin]           |
| b. game      | 게임/시합  | ゲーム[ge-mu]              |
| c. bulldozer | 불도저    | ブル(ドーザー) [buru(do-za-)] |
| d. leather   | 레더/가죽  | レザー [reza-]             |
| e. laser     | 레이저    | レーザー [re-za-]           |
| f. building  | 빌딩     | ビル(ディング)[biru(dinggu)]  |

위 (7)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일본어에서는 영어 어휘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음역어 표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절 표기 문자를 사용하고 또한 일본어가 CVCV... 음절 구조를 갖기 때문에 영어 원어의 발음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는 중국어보다 음역어 표기 방식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일본어에서 영어 어휘를 차용하는 데에 있어 한 가지 특징은 많은 줄임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ulldozer', 'building'과 같은 어휘는 'ブル[buru]', 'ビル[biru]'와 같이 줄임말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축약형의 몇 가지 예들이다(엡센스 일한사전 2006).

(8) 영어 어휘	한국어 표기	일본어 표기
a. television	텔레비전	テレビ(ジョン) [terebi(zyon)]
b. apartment	아파트	アパート[apa-to]
c. condominium	콘도	コンド(ミニウム) [kondo(miniumu)]
d. dry cleaning	드라이클리닝	ドライ(クリーニング)[dorai(kulininggu)]
e. dynamite	다이ना마이트	(ダイナ)マイト [dainamaito]

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어휘의 경우 단어의 후반 형태소를 생략하기도 하고 합성 명사인 경우, 후반의 어휘를 삭제하기도 한다. 때로는 (8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휘의 전반 형태소를 생략하여 줄임말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어에서는 영어 어휘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 음역어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축약 형태를 많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도', '아파트', '테레비', '도자', '드라이'와 같은 용어는 한국어에도 그대로 유입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4. 한국어에서의 영어 어휘의 차용과 표기

우리는 앞에서 중국어와 일본어에서의 영어 어휘의 차용과 표기의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는 한국어의 경우는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해연(2008) 참조). 이미 한국어도 중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사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서양과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정치적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왔고, 개화기를 거치면서 일본과 접촉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불행히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영어 어휘의 차용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되었다.

첫째로, 개화기에 있어서 영어 어휘의 차용은 먼저 서양 문물과 접촉을 하게 된 중국어와 일본어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당시 지식계층들이 다 중국문헌과 일본문헌을 통해서 서양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이미 음역이 되었거나 조어가 된 경우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영어 사용 외국인과 직접 만나서 그들의 발음을 듣고 한글식으로 표기한 예들도 많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어의 발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표기가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박영섭(1997)의 자료에 따르면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영어 어휘의 표현은 한자식 표기와 한글식 표기 또는 병기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자식 표기는 대개 중국어나 일본어에서의 음역 표기법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고 한글식 표기는 서양인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하겠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박영섭 1997).

- (9) a. 그리스, 아덴, 잉글늑식, 모나코, 노-웨이/노웨/노오웨이,  
스코틀랜드/스코틀랜드/스카틀랜드, 논돈/런돈/론돈
- b. 美國, 英國, 法蘭西, 西班牙, 俄羅斯, 柏林
- c. 佛蘭西, 路西亞, 丁抹(ten-matz), 獨逸(toku-itzu)
- d. 구림(구리무), 다박고, 가방, 고무, 미싱

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명사, 특히 지명과 같은 경우에는 음역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9a)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한글로 직접 음역한 경우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예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음성적/음운적 소리 표기가 구분이 되지 않고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경우가 많아 통일되지 않는 여러 형태의 표기가 나오게 되었다. (9b)의 예들은 중국어에서 음역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영국', '서반야' 같은 어휘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9c)의 경우는 일본어에서 한자어로 음역한 예들인데, 이들 중에 '불란서', '독일'과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9d)의 경우는 일본어 음역어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가방', '고무'와 같이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어휘가 있는가 하면, '크림'과 같이 영어에서 직접 새로 음역한 어휘로 바꾸어 사용하는 어휘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김해연 2008).

한국어는 위와 같이 영어 어휘를 직접적으로 도입해서 음역한 것도 있지만,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한자어로 음역한 것을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는 방법을 쓰거나 또는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번역 신조어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사정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해방이후 건국과 6.25사변 등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도 영어 어휘를 정비해 나갔다. 또한 한국어는 1960년대 이후부터 한자보다는 한글 중시 어문정책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한자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영어 교육이 강화되고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영어 어휘의 수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정확히 연대를 말할 수는 없지만, 1970/80년대 이후부터는 영어 어휘를 번역하는 경우보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음역어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 5. 한·중·일어에서의 영어 어휘의 차용과 표기의 상이점

우리는 앞에서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에 영어 어휘가 어떻게 수용되고 표기되었는가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어 어휘가 수용되는 방법은 크게 음역어와 신조어에 의한 번역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역 방법을 각 언어의 음운 체계에 맞추어 영어 어휘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어는 음역 표기에 있어 음절문자라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가능한 의미를 고려하여 번역 신조어를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음역 표기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어와 비교할 때 많은 어휘들이 음역 표기 방법으로 수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번역 신조어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많은 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음역 표기를 하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이는 한국어가 근본적으로 알파벳 문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음역을 하기에 더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몇 가지 예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자.

첫째로 한·중·일어에서 모두 음역을 한 영어 어휘를 보면, 중국어는 음역한 어휘가 제한적인데 비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음역한 영어 어휘가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동아중한사전 2002).

(10) 영어 어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a. chocolate	초콜릿	巧克力[qiakeli]	チョコレート[chokole-to]
b. guitar	기타	吉他[jita]	ギター[gita-]
c. taxi	택시	的士[dishi]	タクシー[takushi]
d. nicotine	니코틴	尼古丁[niguding]	ニコチン[nikotsin]
e. dozen	다스	打[da]	ダース[dasu]
f. disco	디스코	迪斯科[disike]	ディスコ[disuko]
g. marathon	마라톤	馬拉松[malasang]	マラソン[malason]
h. whiskey	위스키	威士忌[weishiji]	ウイスキー[uisuki]

위 (10)에서 제시된 영어 어휘들은 한·중·일의 세 나라 언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음역의 방식으로 수용된 단어들이다. 중국어에서는 한자가 뜻글자이지만, 의미 부분은 무시되고 오직 소리 부분만 염두에 두어 음역어를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원음에 비교적 가까운 한자를 취하여 표기하였지만, 영어 원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카타카나를 사용하여 영어 어휘를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음절 구조 즉 CVCV... 유형의 음절 구조를 따라 표기가 되기 때문에 영어 어휘의 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외는 달리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음소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영어 어휘를 음역어의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에서의 영어 표기가 중국어와 일본

어보다는 영어 어휘에 가깝게 표기되었다고 해도 영어의 원음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영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이 분명하고 또한 강세(stress)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어 표기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참고, 양만섭 2001).

다음으로 영어 어휘의 표기법을 비교했을 때 서로 음역어와 번역된 신조어로 표기되어 서로 다른 경우의 예를 검토해 보자.

(11) 영어 어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a. telephone	전화(기)	電話(機)	電話(機)
b. magazine	잡지	雜誌	雜誌
c. movie	영화(映畫)	電影	映畫
d. television	텔레비전	電視	テレビ[televi]
e. elevator	엘리베이터	電梯	エレベーター[elebeta]
f. juice	쥬스/과즙?	果汁	ジュース[zyusu]
g. computer	컴퓨터	電腦	コンピュータ[komputa]
h. paint	페인트/塗料	油漆/塗料	ペイント[peinto]
i. tuxedo	턱시도/연미복?	宴會便服	タキシード[takusido]
j. air conditioner	에어컨	空調機	エアコン[eakon]
k. apartment	아파트	公寓	アパート[apato]
l. cellular phone	핸드폰	手電話	携帯電話

위 (11)에서는 몇 가지 예를 보이고 있는데, 'telephone'과 'magazine'과 같은 어휘는 19세기 말에 도입되어 한·중·일어에서 공히 '전화(電話)'와 '잡지(雜誌)'라는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movie'와 'television'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에서는 각각 '電影', '電視'로 번역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levator'와 같은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음역어를 사용하거나 번역어 '昇降機'를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번역어 '電梯'를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juice', 'computer', 'paint'와 같은 경우도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음역어를 사용하고 일본어에서 'paint'의 경우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펜키(ペンキ [penki])'를 아울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끔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도료(塗料)'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나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油漆'이나 '塗料'라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tuxedo'의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음역어를 사용하고 과거에는 한국어에서 번역어로 '연미복(燕尾服)'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이를 번역한 어휘로 '宴會便服', '小夜禮服' '无尾夜禮服' 등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air conditioner'와 'apartment (house)'의 경우, 일본어에서 축약 음역어를 사용한 것을 도입하여 한국어에서도 '에어컨'과 '아파트'로 사용하는데 비해, 중국어에서는 각각 '空調機'와 '公寓'라는 번역어

를 사용하고 있다. 'cellular phone'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한국식 영어 표현인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일본어에서는 '携帯電話'로 번역된 어휘를 사용하고, 중국어에서는 '핸드폰'을 직역한 '手電話'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일 언어에 도입된 영어 어휘를 보면, 음역 방식과 신조어 번역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음역어보다는 번역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 있어서는 음역어 방식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최근에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어도 음역어를 쓰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콘도', '아파트', '레미콘', '(불)도자', '테레비' 등과 같이 축약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음절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휘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 하겠다.

## 6. 한·중·일어에서의 영어 어휘의 차용과 상호 교류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중·일어에서의 영어 어휘의 차용과 표기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영어 표기의 상호 교류의 가능성은 어떠할까?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서양 문물과 접촉을 가진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의 음역어, 특히 고유명사가 상호 교류가 되었다.

- (12) (i) India: 印度
- (ii) Vietnam: 越南 (cf. 베트남[betonamu])
- (iii) Thailand: 泰國
- (iv) USA: 美國(cf. 米國[일])
- (v) Greece: 希臘
- (vi) Berlin: 柏林
- (vii) Spain: 西班牙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명과 같은 일부의 고유명사들은 중국어에서 음역이 된 어휘들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그대로 차용하여 한·중·일어의 세 언어에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어휘들로 현재도 대부분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한국에서나 일본어에서 Vietnam, Greece, Berlin, Spain과 같은 경우 직접 음역어를 쓰는 경향이 강해졌지만, 신문이나 학술서에서 특히 줄임말로 사용될 때, 예를 들어 '美越 修交' 등과 같이 나타낼 때는 여전히 한자 간접 차용 어휘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ance, Deutschland, Holland, Denmark와 같은 경우 중국식 음역 표기어가 사용되다가 일본어에서 일본식 한자음에 적합한 음역어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佛蘭西', '獨逸', '和蘭'과 같은 음

역어가 한국어에서 사용되게 되었고, 현재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와 같은 직접 음역어가 더 자주 사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음으로 한자 신조어의 상호 교류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외국 문물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한자의 뜻을 고려하고 고대 문헌 등을 참조하여 영어 어휘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의 신조어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박영섭 1997).

- |      |     |        |              |                 |
|------|-----|--------|--------------|-----------------|
| (13) | (a) | (i)    | absolute:    | 絶對(的)           |
|      |     | (ii)   | category:    | 範疇              |
|      |     | (iii)  | ethics:      | 倫理              |
|      |     | (iv)   | honor:       | 尊敬              |
|      |     | (iii)  | relativity:  | 相對              |
|      |     | (iv)   | metaphysics: | 形而上學            |
|      | (b) | (i)    | cabinet:     | 內閣              |
|      |     | (ii)   | committee:   | 委員會             |
|      |     | (iii)  | criticism:   | 批評              |
|      |     | (iv)   | congress:    | 國會 (cf. 大會, 國會) |
|      |     | (v)    | contagion:   | 傳染              |
|      |     | (vi)   | electricity: | 電氣              |
|      |     | (vii)  | legislation: | 立法              |
|      |     | (viii) | Pacific:     | 太平洋             |
|      |     | (ix)   | Atlantic:    | 大西洋             |

위 (13a)에서 제시된 한자 신조어는 일본어에서 만든 어휘들로 일부는 중국의 고전 문헌을 참고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가한 한자 조어이다(박영섭 1997). 이러한 한자 조어는 중국어와 한국어에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되어 왔고, 또 현재도 그대로 한·중·일어 공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3b)의 경우는 중국어에서 번역 신조어를 만든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일본어에 그대로 도입이 되어 한·중·일 세 나라가 똑 같이 사용하는 어휘가 되었다.

한자 신조어는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한국, 일본이 다 같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번역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동일한 번역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문자 개혁을 단행하여 그 동안 사용하던 번자체(繁體) 한자대신 간자체(簡字體) 한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어에서는 영어 어휘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 자연스럽게 간자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여전히 번자체의 한자를 가르치고 배우며 또한 신조어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번자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어에서도 근본적으로 번자체를 사용하지만, 일본식 한자도 다수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자 자체에 대한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고, 또한 한국식 한자나 일본식 한자에 있어서 의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영어 어휘 수용에 있어서 번역 신조어를 공유하기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에 있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어 사용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먼저 한국과 중국간에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한국전 이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영어 수용에 있어서 독자적인 방법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일 간에도 외교 관계 수립이 1960년대 후반에 이루어지고 또한 상호 간에 적대감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문물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기술이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일부의 어휘가 그대로 유입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 '에어컨', '리모콘', '카메라이스', '비후까스', '아파트', '콘도', '레미콘' 등 신기술/공산품, 음식, 건축 관련 어휘 등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어휘들로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다(김해연 2008).

특히 1990년대 이후는 한·중·일 세 나라가 서구 사회와 직접 교류를 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문물들이 서구사회에서 유입되고 있지만, 영어 어휘를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직접 음역의 방법이나 번역 신조어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과 같은 컴퓨터 관련 어휘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동아중한사전 2002, 엡센스 일한사전 2006).

(14) 영어 어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a. internet	인터넷	因特网[yintewang]	インターネット[inta-netto]
b. mouse	마우스	鼠標[shubiao]	マウス[mausu]
c. e-mail	이메일	E-妹儿[E-meir]/ 전자우편 電子郵件[dianzi youjian]	電子メール[denshi me-ru] イメール[i-me-ru]
d. hacker	해커	黑客[heike]	ハッカ[hakka]

위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대부분 영어 어휘를 음역하는 방식의 음역어를 쓰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鼠標', '電子郵件'과 같이 번역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나라에서 영어 어휘를 수용하는 방법이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같은 한자어 표기를 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간접 차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한글 전용 운동이 강화되어 신세대는 한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어 영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됨에 따라 많은 영어 어휘가 음역어로 도입이 되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된 점도 영어 음역어가 많아진 이유 중의 하나라 하겠다. 결국 음역어나 번역 신조어의 선택의 문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言衆)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 7. 요약과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어, 특히 영어 어휘의 수용과 표기의 문제를 Saussure의 기호/의미 이론에 기반한 번역의 이론에 비추어서 그 역사적인 수용 과정과 한·중·일 세 나라에서의 외국어 어휘의 수용의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19세기 중 후반부터 서구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문물과 더불어 들어오는 영어 어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Saussure의 기호/의미에 대한 이론을 원용하여, 원천언어인 영어 어휘의 소리 형태와 개념 의미가 목적 언어인 한·중·일의 세 나라의 형태와 개념에 어떻게 등가성을 유지하면서 번역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영어 어휘를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크게 나누어 음역어의 방법과 번역 신조어의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음역어로 수용하는 경우, '원음에 충실하게 적는다'는 원칙을 따랐다고 하겠지만, 각 언어의 음운 구조가 달라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어의 경우, 의미 중심의 음절 문자여서 원음에 적합한 문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더 일찍 서구 문화와 접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음역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았다. 일본어를 통해 음역된 것도 있었는데, 이는 일본어 음운 규칙에 맞추어 중국어와 달리 새로운 한자 음역어를 만들었음도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어에 수용된 여러 어휘들은 현재에도 일부는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았다. 한국어에서는 일부 직접 음역이 이루어 졌지만, 음소에 대한 개념 미확립, 음성적 층위의 음역, 맞춤법 통일안 부재 등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표기에 있어 여러 변이형이 나타나는 일관성이 결여된 표기가 되었다는 것도 검토하였다.

번역 신조어를 만들어 영어 어휘를 수용하는 방법은 주로 뜻글자인 한자어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화기에 있어서 한국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받아들인 문물에 대해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수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자를 통한 음역어의 방법은 알파벳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한계가 있지만,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번역 신조어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에 신조어는 거의 대부분 한자의 결합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조어방식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중국, 한국, 일본에 있어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19세기후반 20세기 초반에 많은 영어 어휘가 들어왔고 또한 많은 어휘가 음역어와 번역 신조어의 방식으로 수용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이후 정치적, 문화적 상황이 바뀌게 됨에 따라 그 수용 양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한국어에 있어서 개화기에는 한자/중국어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일제 식민지시대에는 한자/일본어문화권을 거쳤다. 이러한 시기에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서구문물과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이들의 음역어, 신조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그 이후 해방과 독립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50-60년대는 한자/한글 문화권을

거쳐 왔으며, 70-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영어문화권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언어공동체의 공유지식의 기반이 변화되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외국 문물의 수입과 영어 어휘의 수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80-90년대 이후, 한국은 한글 전용 운동과 영어 지식의 광범위한 확산, 그리고 서구의 여러 나라와 직접 교류를 하는 마당에서 영어 어휘의 수용과 표기 방법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참고, 신승용 2003). 과거에는 한자 음역어나 번역 신조어와 같은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한자어에 기반한 어휘는 영어 음역어에 의해 대체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의 간자체 사용을 주로하게 되는 문자 개혁과 정치적으로 단절을 겪었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어 어휘의 수용에 있어, 언어공동체의 지식기반의 변화에 따라 외국어 어휘의 수용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어에서는 과거의 표기방법과 새로운 표기 방법이 혼재되어 있고 다양한 지식기반을 갖춘 언중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현재 한국어에서의 영어 어휘의 수용은 앞에서 보여준 많은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접 음역 방식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는 언중의 지식이 변화된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외국어 어휘 수용의 방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겠다. 번역 신조어의 방법을 사용할 때, 한국어 고유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자를 이용한 신조어를 사용할 것인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개화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라 할 수 있고, 변화된 언어 환경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판단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혜연. 2005. "복합명사구의 형성과 번역 등에 나타난 언어적 동기-전기/전자와 관련된 단어를 중심으로". 『제 25회 담화인지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27-42. 2005년 12월 10일. 서울: 숭실대학교.
- 김혜연. 2007a. "번역에서의 어휘의 형태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 『영어학』 7(2), pp.265-285.
- 김혜연. 2007b. "콩글리시 어휘의 유형과 형성의 인지적 동기". 『담화와 인지』 14(3), pp.25-52.
- 김혜연. 2008. "개화기 영어 어휘의 차용과 번역의 문제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과 분석". 『언어』, 33(3), pp.457~480.
- 동아중한사전. 2002. 서울: 두산동아.

- 박영섭. 1997. 『개화기국어어휘자료집 (5) 외래어편』. 서울: 박이정.
- 신승용. 2003. "영어 차용어의 자음 대응 원칙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135(12), pp.71-99.
- 양만섭. 2001. "영어의 차용어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23, pp.59-80.
- 엣센스일한사전. 2006. 서울: 민중서림.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곽은주, 최정아, 진실로, 김세정 역. 2005. 말바꾸기: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 Bell, Roger 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Hartmann, R. R. K. and F. C. Stork. 1972.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pplied Science: Amsterdam.
- Hatim, Basil and Jeremy Munday. 2004. *Translation: An Advanced Resource Book*.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정연일, 남원준 역. 2006.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어대학교출판부].
- Saussure, Ferdinand de. 1916/1965.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Toronto, London: McGraw-Hill.

**김혜연**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  
E-mail: haeykim@cau.ac.kr

접수일자: 2009. 11. 10

수정일자: 2009. 11. 30

게재일자: 2009. 12. 10